

갈매기와 함께 떠나는

섬 여행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서검도
미법도

(주)삼보해운 SAMBO Marine Co., Ltd.
www.kangwha-sambo.co.kr

- 선수선착장
Tel (032) 932-6007 Fax (032) 933-6619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1
- 주문(살곳이)선착장 Tel (032) 933-6975
- 볼음선착장 Tel (032) 933-6982

운항안내

- 선수-볼음-아차-느리 (1일 3회 왕복)
소요시간 : 볼음 55분 / 주문(느리) 1시간 20분
- 선수-살곳이 (1일 3회 왕복)
소요시간 : 35분

※운항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됩니다. (홈페이지 참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은 신분증이 있어야 승선하실 수 있습니다. (해운법 21조 2항 근거)
※리플렛은 당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하리-서검 노선안내

Sugum-Hari Wharf



선수상세지도

SunSu Wharf

선수선착장



김포시 (Kimpo City)

(Dong gum do Island)



Ganghwa Tracking Map

강화나들길 코스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도의 나들길은 역사와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선사시대의 고인돌, 고려시대의 왕릉과 고려궁지, 조선시대에는 전략적 요충지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던 진보와 돈대등 선조들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갯벌과 철새, 바다위의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다. 나들길 코스별로 특색이 담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인증스탬프가 준비되어 있다.



12코스 주문도길

거리 11.3km / 소요시간 3시간



13코스 볼음도길

거리 13.6km / 소요시간 4시간



주문도

역사와 해당화가 피고 지는 섬

주문도는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이 명나라 사신으로 갈 때 임금에게 하직하는 글을 이 섬에서 올렸다 하여 아될 주(奏), 글월 문(文)을 써서 주문도(奏文島)라 하였는데, 후에 주문도(注文島)로 바뀌었다고한다. 조선 인조 때 교통수영에 속한 주문첨사를 두었으며 국영목장도 있었다.



서도중앙교회 (인천광역시 문화재 자료 14호)

서도중앙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 1902년 교회가 설립되고, 1923년 주민 헌금으로 한옥 예배당을 지었다. 한국 전통목조건물의 가구형식을 바탕으로 서양교회를 건축했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해당화군락지

해당화는 바닷가 모래땅과 산기슭에서 나는 낙엽관목이다. 주문도에는 해당화가 많아 해당화 피고 지는 섬이라고도 부른다. 5월이 되면 해변길 따라 해당화가 무리지어 핀다.



대빈창해수욕장

주문도에서 가장 큰 해변으로 백사장을 따라 소나무 숲이 있다. 대빈창은 송나라와 명나라의 사신을 영접하고 많은 상인들이 드나들던 기항지이다. 하얀 백사장과 푸른 숲이 조화를 이루며 휴양지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뒷장술해수욕장

주문도의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뒷장술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물이 빠지는 간조 시 드러나는 거대한 갯벌에는 조개와 백합 등 다양한 해산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해수욕을 즐기면서 조개캐기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볼음도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섬

조선 인조 때 임경업 장군이 풍선을 타고 명나라에 원병수신사로 출국하던 중 섬 부근에서 풍랑을 만났다. 이때 볼음도로 피신하여 15일간 체류하다가 둥근달(보름달)을 보았다 하여 원래 만월도(滿月島)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그 후 우리말인 '보름'달의 발음을 따라 한자화가 이루어져 볼음도가 되었다고 전해 온다.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천연기념물 419호)

세계3대 갯벌인 강화 갯벌의 주 지역으로 인근 무인도서가 전세계에 3000여 마리 밖에 없는 멸종위기종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의 번식지이다. 저어새를 찍기위해 사진 작가들도 많이오는 섬으로 바닷가에서 저어새를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조류관찰소로 가면 다양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



서도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 304호)

약 800여년전 수해에 떠내려온 은행나무를 심은 것으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다.나무높이 25m, 가슴 높이의 줄기둘레 8m, 밑동둘레 9.7m이다.



조개골해수욕장

모래백사장과 주변에 소나무 숲이 있어 아늑한 해수욕장이다. 조개가 많다하여 조갯골이라 부를만큼 뱃에는 조개가 많다. 작은 소나무들 사이에서 파도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즐기기에 좋은 백패킹 명당자리로도 알려져있다.



영들해변

조개골보다 넓은 해변을 갖고 있는 영들해변은 간조때 볼음도보다 서너배 큰 갯벌이 드러난다. 이곳은 상합이 많아 갯벌체험 장소로 적격이다.

아차도

고요한 섬마을

아차도는 주문도와 볼음도 사이에 있는 작은 섬으로 한적한 섬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갯벌너머 바다에 떨어지는 낙조가 절경이다. 섬은 비록 작지만 우물이 좋아서 예전에 많은 배들이 물을 길어갔고 지금도 마을 곳곳에 우물이 남아있다.

아차도의 이름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재미있는 설은 천년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다 임신한 여자를 보고 아차 하는 순간에 바다로 떨어져 그대로 하나의 섬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서검도

서검도는 조선시대 중국에서 사신이나 상인들이 한강 하류를 따라 한양으로 들어올 때 검문하던 기관이 있었던 강화도 서쪽에 있는 섬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미법도

옛날 서검도에서 중국 사신과 상인을 검문을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검문하던 곳이라서 그칠 미(彌)자와 법 법(法)자를 사용하여 미법이라 했다.

안내 Information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민박(예약필수)	o	o	o
농협마트	o	o	X
보건소	o	o	X
대중교통	X	X	X

